

‘U대회 선수촌’ 동의안 처리 전망과 과제

“인센티브 불가피” 시민 공감대 확보 우선

“재건축이 최선”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
각계 참여 대책기구 구성 갈등 없어야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에는 재건축조합은 물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건설 불경기, 구도심 쇠퇴, 신규 개발 부양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스포츠 이벤트와 도시재생을 결부시킨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중요 핵심사업으로 추진돼 온 재건축 선수촌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낮고 미분양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기피,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주 초까지 동의안 처리되나 = 지난 24일 광주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2015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칙적으로는 6명의 행정자치위원 중 대부분이 동의했으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협정 조건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 됐다. 시의회 행정위는 시민단체와 시의회 자문기

구인 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오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일단은, 행정자치위원들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은 만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조율하면서 광주시와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전체 의원 간담회로 사안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자칫 광주시의회의 동의가 계속 미뤄지고 지역 내 반발이 계속될 경우 광주시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외곽 신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재건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최대 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부담, 민선 5기의 도시재생 기조 역행, 추진 과정에서의 행·재정력 낭비, 국내외 이미지 악화 등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광주시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장은 “최소한 다음달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라며 “철거나 이주 등의 일정이 촉박해 자칫 준공기한을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 자체의 의미

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각계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해야=일각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폭에서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 지역 내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선수촌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면서부터 사실상 일정수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번복

하고 협상을 철회하면서 갈 길 바쁜 광주시가 이 같은 추진과정을 시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선수촌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련의 추진과정에 시장으로서 떳떳하게 임했으며, 이를 주변 일부 건설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번복

이처럼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후 광주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불가될 수 있는 민원이나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광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재건축조합, 시공사,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2008. 10.
· 화정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유찰	2009. 04. 29
· 광주U대회 유치 확정	2009. 05. 23
· 화정주공 선수촌 사용 방침 결정	2010. 08. 24
· 선수촌 시공사 선정 입찰 유찰	2010. 09. 09
· 현대건설 선수촌 재건축 참여의향 표시	2011. 03. 16

민선 5기 최대 핵심사업인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현대건설 간 협정 조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29일 광주시가 제출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 동의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단지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

평균수명 83.5세...65세 고령 인구 38.2%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8.2%에 달하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령연구위원회 김병덕 선임연구위원과 이석호 연구위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영양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50년 83.5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는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이 걸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2020년에 125.9로 상승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2050년에는 429.3에 이르러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자 부양비율은 2050년 우리나라 91.4%를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사회구조의 변화, 공·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규모가 더 커져 고령화 리스크가 심각하게 된다. /연합뉴스

50대 10명중 7명 “노후준비 못해”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월 121만원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이상 중·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최근 공개한 ‘제3차(2009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대비해 생활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68.2%나 됐다.

성별로는 남성(59.9%)보다 여성(74.1%)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하가 56.8%, 60대 66.7%, 70대 78.5%, 80대 이상 87.8%로 고령 집단체에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비교적 저연령층인 50대 이하의 조사대상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 준비 상태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필요한 최소 생활비 평균치는 부부 기준으로는 월 121만5000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76만3000원이었다. 또 적절한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월 174만6000원, 개인 기준 111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최우선 순위의 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과 근로활동을 통한 임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을 우선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9.0%였고, 근로생활을 통해 얻는 소득이 1순위로 꼽은 응답은 23.7%였다.

중고령자들의 고용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령자 개인 고용률은 1차 조사 당시인 2005년 48.9%였으나, 2차 조사(2007년)에서는 46.9%로 낮아졌고, 3차 조사에서는 43.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세수기반 무너진다

중부세 2년새 3분의 1 토막에 취득세 감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수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악화로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 월급마저 제대로 못 출 상황에서, 이처럼 지방 세수 기반이 자꾸 줄어들어 따라 우리가 커져 가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중부세 부과액은 2005년 6426억원에서 2006년 1조 71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조 7671억원에 달해 3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계금융으로 강남, 분당 등 중부세 부과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면서 추세는 역전됐다. 중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 3280억원으로 줄더니 2009년에는 1조 7180억원으로 떨어졌다. 2년 새 65%가 줄어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2009년 부과 대상은 21만 2000여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거둬들이는 세금을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쓰는 중부세가 축소된 데 이어 정부가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록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중부세, 취득세 등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잇따라 줄어들면서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중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고,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세수는 4조원 가량이나 타격을 입을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2006년 당시 4%였던 취득·등록세를 2%로 낮출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부세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상쇄시켜 줬지만,

지금도 중부세 축소로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광주시는 353억원, 전남도는 40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중부세까지 감소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28일 간부회의에서 “취득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2할 자치의 한계를 일본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된 문제를 결정할 때 중앙정부는 반드시 협의하고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만간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해 지방자치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대표이사 최금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2박3일 ★ 목포-제주도 ₩139,000원 ~
- 2박3일 ★ 장흥-제주도 ₩159,000원 ~
- 2박3일 ★ 항공-제주도 ₩249,000원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 1박2일 ₩279,000원 ~
- 2박3일 ₩309,000원 ~

광주에서 출발하는 **홍도**

- 1박2일 ₩177,000원 ~

2011 봄 미국/캐나다

- 9일 ★ 미서부 3대캐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2,390,000원 ~
- 9일 ★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나이아가라 완전일주 ₩2,890,000원 ~
- 13일 ★ 미서부(3대캐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 ₩3,590,000원 ~

불포함: 각종팁(가이드/기사 1일/1인 \$10,식당,호텔 \$1), 5월이후 유가할증료 인상분, 선택관광, 미국 ESTA 비자피(US\$14 - 대명시 20,000원)

명사와 떠나는 역사문화테마여행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일우문사’에서는 2007년 터키역사문화에 이어 영국일주역사문화테마여행을 기획하여 함께 참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일우문사’ 인문학리케움(공동체매움의 전당)을 지도하시는 김춘섭교수님이 직접 여행에 참가하시어 현장에서 역사와 문화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5월25일~6월3일 ★ 상품가격 ₩4,390,000원 ~
8박10일 불포함:공동경비(1일/£10), 유류할증료(\$190)

중국

- 3박4일 ★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949,000원 ~
- 4박5일 ★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969,000원 ~
- 3박4일 ★ 무안-북경+금명왕조 ₩399,000원 ~
- 4박5일 ★ 무안-북경+석화동굴 ₩459,000원 ~

불포함:유류할증료, 중국비자, 기사 가이드팁

인천 - 베트남/캄보디아

- 6일 ★ 베트남 / 캄보디아 ₩769,000원 ~
기사&가이드팁(\$50),생수,톤레샵사공팁(\$2),캄보디아 급행비자피(\$25)

인천-싱가폴

- 5일 ★ 싱가포르 / 조호바루 / 바탐 ₩799,000원 ~
- 5일 ★ 싱가포르 / 빈탄 ₩779,000원 ~

불포함:기사가이드팁(\$40),비자피(\$15),항만세(\$20)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통보험 가입 / 여행금액 기입입해 *공동여행:항공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항공, 버스, 기차)외 식사, 숙박, 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